



국내 편의점 36년만에 감소 시장재편 본격화 L1



Life

큐라클 1조 규모 기술 수출 L2



독립 가치 있고, 푸른 지구 지키고 사회에 '웃음 씨앗' 심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빙그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소."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의 위대한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근심과 설움, 가책이나 훈타 없이 오직 양심에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웃음을 '빙그레'라 정의했다. 그는 갓난아기의 '방그레', 젊은이의 '빙그레', 늙은이의 '빙그레'로 웃음을 구분하며, 이 밝은 미소야말로 우리 민족이 되찾아야 할 본연의 모습이라 강조했다. 도산이 꿈꿨던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오늘날 식품기업 '빙그레'의 경영철학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도산의 가르침이 기업의 심장되다

빙그레의 사명(社名)은 단순한 브랜드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민족적 유산을 담고 있다. 빙그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미소 운동'에 착안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밝은 미소의 메신저'라는 기업 미션을 수립했다. 이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운 웃음을 드리는 '사회적 기여자'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나눔과 상생의 경영철학은 근 60년간 빙그레 경영의 근간이 되었다. 빙그레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을 견고히 쌓아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으며, 2025년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A를 받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김호연 회장 신념이 '보훈 경영'으로

빙그레의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독보적이며 진정성 있는 행보는 단연 '독립운동 선양 사업'이다. 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확고한 역사 의식과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김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김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장, 독립기념관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독립유

도산 안창호 선생 '미소 운동'서 착안 민족 역사와 유산 담은 사명 '빙그레' 국민에게 기쁨 주는 경영철학 이어와

김구재단 설립... 독립유공자 지원 8년간 독립후손에 5.7억 장학금 전달

공자 지원 사업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철학은 빙그레공익재단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11년 설립된 재단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빙그레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관제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맺은 업무협약은 그 의미가 깊다. 재단은 이후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415명에게 5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근 빙그레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경찰, 소방 등) 자녀들에게까지 잇기로 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지구도 미소 짓는 '에코 프렌들리'

빙그레의 미소는 사람을 넘어 자연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2024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빙그레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업계의 파스트 무버 역할을 자처한다. 영업용 냉동 탑차를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며 탄소배출량 저감에 나서는가 하면, 제조 공정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주요 제품의 패키징 혁신이다. 떡볶이 발효유의 대명사인 요플레 오리지널은 2012년부터 컵 용기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해왔으며, 플라스틱 캡을 제거한 리뉴얼 제품을 선보이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감축했다. 국민 간식인 바나나맛우유는 용기의 중량을 줄이고, 용기 생산 과정에서 남게 되는 플라스틱을 가공 후 재사용해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한 노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캠페인과 궤를 같이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1 빙그레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2 2025년도 경찰청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전달식.
3 빙그레는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 왔다.
/빙그레



탄소중립 우수기업...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효율 혁신, 친환경 패키징 확대

40여년간 어린이 위한 '그림잔치' 열어 임직원 참여 국내외 환경 개선활동도

◆어린이 꿈과 파트너사 성장을 위해

빙그레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전한다. 1986년부터 40여년간 이어온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는 아이들이 꿈과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수백여 명의 어린이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국내 대표 문화 예술 축제로 거듭났다.

또한,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해 2001년부터 약 20여 년간 해비타트(사랑의 집짓

기) 운동에 참여해 왔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건축비 지원을 통해 강원도와 천안 등 국내는 물론 몽골, 태국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해외 지역에도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아가 투게더와 바나나맛우유의 판매 수익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을 돕는 '희망풍차 사업'을 비롯해 RCY,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후원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식품 회사로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다. 빙그레는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거래 절차를 준수하고, 협력업체의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셀틱 양현준, 시즌 10호골...홍명보호 명단 발표 전 '존재감' /사진 뉴스사
▲이재성·정우영, 코리안더비...'최초 유럽 5대리그 감독' 에타 첫 승

▲'WNBA 韓역대 3호' 박지현, 개막전에서 데뷔 전 처리
▲'홍명보 감독 앞에서 2경기 연속골' 이승우... '최선 다할 뿐'

▲'손흥민 MLS 9호 도움 취소'...LAFC, 휴스턴에 1-4 완패
▲상승세 제대로 탄 삼성 라이온즈, LG 잡고 선두 노릴까